여성 야구팬 먹거리 노려라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9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월드컵 대표팀 최종명단 발표

5년 9개월 만에 최저, 원화강세 과도한 측면

현대기아차 10원 하락하면 2000억 손실 발생

수출주도 기업 치명타…정부 예의주시 신중

1020원대 환율…한국경제 '빨간 불'

"원·달러 환율하락과 신흥국의 환율상승 등 환율 리스크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수익성 개선 폭이 둔화됐다"-이원희 현대차 부사장

원·달러 환율이 1020원선을 위협하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주력업종인 전자·통신기기와 자동차·조선산업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전일 1022.5원보다 소폭 상승한 1022.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7일에는 연 저점인 1022.5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8년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환율 하락세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융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연일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화가 늘어나는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쌓여 환율 하락세를 부채질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월간 움직임을 봤을 때 원화 강세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이 20원대로 내려온 것은 대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출주도형 기업 환율 직격탄

환율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가 지속되며 국내 기업도 좌불안석이다. 연초 환율 하락에 대비해 헤지(Hedge) 등으로 환위험 도는 낮췄지만 자동차·전자·조선 등 수출이 중심인 국내 기업에 환율하락은 치명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340대 제조업체 가운데 10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을 1066.4원으로 잡았다. 이미 마지노선인 1066.4원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1040원 선까지 손익분기점으로 전망했다"며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 비중이 많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자동차 업계는 환율 직격탄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수출 비중이 80%로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현대차는 1200억원, 기아차 8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올 초 사업계획에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050원으로 시장 예상치(1066원)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환율이 1022.5원으로 마감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조선업계들도 원화 강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업계들은 환율 변동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환헤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환율이 떨어져도 크게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수주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호조를 보이던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의 수준이나 속도 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어렵다"면서도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면>

/김태균·조현자 기자 ksm@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음악회…신영옥 5월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 전하다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가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 동시에 슬픔에 잠긴 국민들에게 힐링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다. 신영옥은 아무 장식도 없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등장하고 구슬픈 선율의 '아베 마리아'를 불러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랬다. <관련기사 12면> 사진/[illegible]

무인기 3대 北에서 발진

컴퓨터 저장내용 분석 결과 개성·해남·평강서 비행

진도 찾은 야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8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3~4월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이었다. 이들 무인기는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계획과 남측지역의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서해 소청·대청도의 군부대를 주로 촬영했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 부대의 경계 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대공포, 육군 불가 등 타격체계를 조정해 운영 중"이라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기를 동시에 탐지·타격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우선으로 구축하고 다른 지역은 현존 전력과 추가 보강 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K-뷰티' R&D 투자 늘려야

기자 수첩
정 혜 인
<생활레저부 기자>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연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선 'K-뷰티'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성장세에 비해 국내 업체들의 R&D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된다.

'2013년 보건산업통계집'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국내 화장품 업체의 연구개발비는 22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줄었다.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데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0년부터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R&D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업계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저 할인 경쟁을 반복하거나 인기 아이템을 모방한 미투 제품을 쏟아내고 있어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 세계 업계 1위인 로레알 그룹은 매년 연구개발비로 매출의 3~4%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2.68%, LG생활건강은 2.4%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이 비중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국내 업계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K-뷰티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력'이라는 근본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야 원내대표에 이완구·박영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8일 나란히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이완구 의원을 뽑았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들은 단독 출마해 표결 없이 합의 추대됐다.

이 원내대표는 전신 한나라당을 포함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첫 원내대표다. 그는 1950년 충남 청양 출신으로 대전중·양정고를 거쳐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해 충남 홍성경찰서장과 충북·충남 경찰청장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원내대표로 박영선 의원을 선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여성 원내대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대결

여야 원내대표 서열굴 새누리당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8일 휘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영선(오른쪽)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끝에 전체 투표 참여자 128명 중 69표를 얻어 59표를 득표한 노영민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경남 창녕 출신의 박 원내대표는 1982년 MBC보도국에 입사했으며 2004년 정계에 입문,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17대 의원 비례대표로 첫 의정 생활을 시작했으며 18대·19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조현정기자 hj@

남겨진 슬픔 세월호 침몰사고 23일째인 8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이 실종자 가족들이 하나 둘 떠나가면서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인다 /연합뉴스

뇌출혈 쓰러진 해경 회복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한때 의식을 잃었던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대 소속 정모(49) 경사가 8일 오전 의식을 되찾았다.

정 경사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목포 한국병원에서 5시간가량의 수술을 받고 이날 오전 3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이 잘 돼 의식은 회복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대에서 전탐지기를 조종하는 헬기 전탐사인 정 경사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근무 교대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과 다리 마비 증세 등을 보여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잃었다. /윤다혜기자

시신 유실 대비 수색 80km 확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시신 유실과 유류품 수거 등에 대비한 수색 범위가 80km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사고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범위까지 그물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색과 항공수색을 벌여온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8일 "어제부터 해상수색 범위를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 소안도까지, 항공수색은 80km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고 해역에서 남북 20km, 동서 16km까지 펼쳐진 총 284㎢의 구역 중 지난 1일 84㎢를 '사이드 스캔 소나'를 장착한 선박으로 해저영상탐사를 한 뒤 추가 탐사를 통해 총 187.4㎢까지 진행했으나 실종자로 추정되는 영상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 진도와 해남 해안가에서 신발 2점, 의류 1점 등 4점을 발견했지만 해상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최연훈기자

수사정보 흘린 해경 경사 대기발령

한국선급에 대한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를 미리 흘린 부산해경 직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정보과 소속 A(41) 경사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의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정보를 하루 전날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귀띔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한국선급이 보유한 요트 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의 기록이 담긴 해경자료 일부를 한국선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사를 상대로 검찰 내부정보 입수 경로, 수사정보 유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민준기자

교총, 학생안전망 캠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부터 '온 동네 나서 우리 자녀 지키자'를 주제로 한 학생 안전망 구축 캠페인을 연중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총은 정부와 학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체험활동 도중 또는 체험활동 전후의 안전 요령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상황 등을 담은 영상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문자메시지로 학교에 교내 안전사고, 전염병과 같은 위기 관련 경보를 제공하는 위기관리경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위기 상황 시 교사들이 일지적 안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건물이나 교육활동 장소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를 만들자는 요구안도 내놓았다. /윤다혜기자

'소환 불응' 자녀들 체포영장

유병언 다음주 소환 집중수사 – 청해진해운 대표 포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들이 검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소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다음 주께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네이션 달지 않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들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애도속에서 카네이션을 달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이날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가 침몰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씨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구조자 부풀리고… 실종자 숨기고…

대책본부, 구조 172명으로 정정 – 보름이상 감춰

세월호 침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구조자 수 집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보름이상 감춘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대책본부는 8일 "세월호 구조자는 애초 174명에서 172명으로 2명이 줄고 실종자는 2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실종자는 35명이고 탑승인원은 476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등 인적 현황을 바꾼 것은 이번까지 7차례에 달한다.

구조자 수가 줄어든 것은 화물기사 양모씨 등 2명이 중복기재된데 따른 것이며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명단에 없던 중국인 2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해경이 밝힌 중국인 탑승객은 지난달 21일과 23일 수습된 중국인 예비부부 이도남·한금희씨다. 해경의 말대로라면 이미 사망자 수에 포함된 두 명은 갑자기 추가 실종자에 포함한 셈이다.

또 지난달 21일 양모씨가 중복산고한 인원으로 2명이 허수임을 알았다. 해경이 인적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탑승인원을 바로 잡았다면 18일 476명, 21일 474명, 23일 476명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해경은 이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탑승자 혼선과 번복 등에 부담을 느낀 해경이 생존자 중복 집계로 2명이 줄지 이를 이용해 빠졌던 탑승자 2명을 포함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김민준기자

BS황금알통장 가입하고 영화표 받자

부산은행 '블루&스토리 페스티벌' 이벤트

부산은행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대고객 이벤트인 'Blue & Story Festival'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은행의 정기적금, 수익증권,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및 새로 출시되는 BS황금알통장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특급호텔 숙박권(1명 150만원 상당, 5명 3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10명 20만원), 워터파크 초대권(20명 10만원), 동물원 체험권(100명 2만원)등 총 136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BS황금알통장 가입고객 및 자녀 100명을 추첨해 탄어름 무더위를 날려 줄 'Summer Skating & Cinema'를 진행해 스케이팅 강습과 식사와 함께 하는 영화 관람 행사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 6월부터 7월 말까지 휴가 기간 중 귀중품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대여금고를 부산은행 41개 지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 마케팅본부 박영봉 부행장은 "가족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라고 풍성한 고객사은 행사인 Blue & Story Festival을 준비했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혁균기자

어르신, 카메라로 소통하다

'실버영상제' 부산시민회관서 9월 개최…공모작품 접수

영상의 도시 부산에서 노인미디어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부산시민회관에서 '레디 액션! 우리도 영화감독이다'라는 주제로 '제4회 부산실버영상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실버영상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신 노인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주관을 맡게 된다.

또한 이번 영상제에 앞서 오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레디 액션! 우리도 영화감독이다'를 주제로 한 영상공모전이 실시된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상영, 기타 부대행사가 실버영상제 본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공모전의 응모분야는 만60세 이상은 10분 분량 내외의 창작영상 및 영상스틸사진 3매 또는 사진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노인'을 주제로 한 사진 및 포스터, 일러스트, 캐리커처를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1명·200만원), 최우수상(2명 100만원), 우수상(4명·50만원) 등 총 27편에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주최측은 수상자 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번 시상식부터 레드카펫 무대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둘째 날에는 실버문화축제가 열려 부산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려 진정한 노인들의 축제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나도 배우다' 포토존, 건강무료검진, 사진전, 야외상영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정혁균기자 hk@metroseoul.co.kr

편의점서 인질극… 2시간만에 범인 검거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질로 잡혀 있던 여종업원도 경찰에 무사히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8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종업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황금연휴'에 지역 찾은 외국관광객 7만명

중국의 노동절, 일본의 골든위크가 겹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른바 '황금연휴'에 7만여 명의 외국 관광객이 부산을 찾았다.

관광객 대부분은 중국인과 일본인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와 러시아, 인도 등지에서 온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부산시티투어버스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맞아 국내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탑승하기 위해 최소 2시간가량 대기하기도 했다.

황금연휴 8일 가운데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엿새 동안 시티투어버스 탑승객은 7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00여 명에 비해 79%가량 늘었다.

소리꾼 장사익 내일 공연

소리꾼 장사익의 데뷔 20주년 특별 공연이 10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다.

장사익은 이번 공연에서 흥겨움 대신에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진혼과 위로를 중심으로 공연을 끌어간다.

피해자 가족과 희생자를 위해 '찔레꽃', '아버지', '꽃구경', '이게 아닌데' 등 가족의 인연, 생과 사의 삶을 주제로 한 노래를 2시간여 동안 부를 예정이다.

이번 특별공연에는 장재일, 최선배, 고석용 등 15명의 연주자가 함께한다.

부산도시공사 공사비 46억원 과다산정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A 지구 1공구와 일반산업단지 1~4공구 조성 과정에서 공사 물량 등을 과다하게 설계하거나 공법을 잘못 택해 공사비를 과다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 사와 533억1200만원에 계약해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A 지구 1공구 조성 과정에서 아스팔트 깨기 물량을 과다 설계했다.

도로면적(8만6064㎡)과 아스팔트 두께(15cm)를 반영하면 아스팔트 깨기 물량이 1만2908㎥인데 임의로 3만5000㎥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설계 내역에 반영했다.

또 C사 등 4개 업체와 공동도급계약(계약금액 1977억6400만원)을 체결, 201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일반산단 1공구 조성공사에서도 방음벽을 낙동강유역관경청에서 승인받은 기준과 달리 578m 과다 설계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낭비된 공사비가 아스팔트 깨기 공사비 5억3890만원, 방음벽 설치 공사비 4억400만원 등 13억428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오수관거 설치 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에 따라 오수관거는 공사현장의 경사도 등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노선 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해야 하는데도 일반산단 1~4공구 오수관거에 자연유하 방식을 채택, 33억430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자연유하 방식이란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 오수가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사도 유지를 위해 깊이 굴착할 구간이 많아지고 오수관거 노선 중간에 맨홀펌프장을 설치할 때보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감사원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46억8580만원 상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촉구했다.

/연합뉴스

영산대 세월호 침몰사고 성금 기부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9일 이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이 세월호 희생자 애도의 마음을 담아 모금한 금액 133여 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영산대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은 지난달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자체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에 동참한 인도네시아 유학생 지지(국제무역학과 4학년)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으로서 이번 참사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병수 "노령친화형 도시 만들기"
김영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온힘"

여야 부산시장 후보 노인정책

서병수 후보 김영춘 후보

차기 부산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각각 노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먼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의료·주거·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임기중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질환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고령후 지원센터 설립 등 모두 6개의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할 때 지불하는 접종시행료(약 2만원)를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해운대역 광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나선 자리에서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서민들에게는 반값 주택 수리비를 실현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령 기술자의 사회적 기업 창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어르신들이 이곳에 취업할 수 있게 부산시 재정으로 적극 지원한다면 일자리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부산은 노령화 인구 비중이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높지만 고령화 대응력 지수와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부산, 어른을 공경하고 제대로 대접하는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주택 반값 수리비 정책 외에 ▲노후 주택단지 등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 ▲어르신들은 좋은한 시간제 일시날유 일자리 마련 ▲어르신들의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시와 공공기관 식당에서 농산물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하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광안리 밤바다에 레이저쇼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부산 광안대교에서 7일 밤 레이저쇼가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수영구와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키리지에 걸려 레이저 장치를 설치해 매일 밤 레이저쇼를 펼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소변검사 스마트폰 앱 개발

부경대 장병용 교수팀 발표

부경대 화학과 장병용 교수(왼쪽)와 학부생 홍종일 씨.

국내 연구진이 간편하게 소변검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경대학교 화학과 장병용 교수(38)와 이 학과 학부생 3학년 홍종일 씨(24).

이들은 소변검사 분석기능을 갖춘 앱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인 '스마트폰 기반의 다중물질 색상 센서 개발'이라는 논문을 SCI(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저널인 'Lab on a Chip' 5월호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변에 담근 소변 검사지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식하면 해당 적혈구, 백혈구, 비타민, 혈청 등 12가지 항목에대한 검사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검사 항목별로 정상, 위험 1~3 등 4가지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표시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용자 건강상태의 변화추이도 한눈에 볼수 있다.

특히 이 앱을 통한 검사결과는 병원의 정밀 분석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으면 해당 스마트폰이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아직 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앱을 개발한 장 교수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기본인 소변검사를 누구나 손쉽고 싸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앱을 개발했다"면서 "의료기기 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무료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하균기자

동의대 취업·인턴 박람회

동의대 ICT공과대학은 9일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내 지천관 앞 광장에서 제1회 ICT 취업·인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KNN방송과 디지털조선일보, 나무기술, 포스에이치웍스㈜, 토탈소프트뱅크 등 부산지역과 전국의 IT(정보기술)와 CT(콘텐츠산업) 관련 7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충장공 정발장군 추모행사

부산 동구(구청장 정영석)는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을 사수하다 전사한 충장공 정발 장군의 제422주기를 맞아 오는 12일 좌천동 정공단(부산시 지정기념물 제10호)에서 추모행사와 함께 제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날 행사는 개전→국민의례→유사낭독→제관입단→재예→제관퇴단→분향→폐전의 순으로 진행된다.

화명동~양산 강변도로 11년 만에 완공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를 잇는 강변도로가 착공 11년 만에 완공됐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북구 화명생태공원 앞~양산 도로 현장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등 관계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화명~양산 도로는 길이 6.8㎞, 폭 18~38m(왕복 4~8차로)로 화명동 쪽 다대항 배후도로 종점부인 덕천나들목에서 금곡나들목까지 3.44㎞는 신설됐고, 금곡나들목에서 양산까지 3.36㎞(2005년 완공)는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됐다. /연합뉴스

아동 우호 그림전 작품 선정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제2회 한·중·일 아동 우호 그림전'에 전시할 100점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이에 앞서 자국의 문화, 생활, 축제, 환경보전이라는 주제로 유지부, 초등부(1~3학년), 초등부(4~6학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작품을 공모했다.

심사 결과 ▲유지부 20점 ▲초등부(1~3학년) 40점 ▲초등부(4~6학년) 40점이 선정됐다.

세나라 자매도시 어린이들의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한 그림전은 7월 중국 상하이, 8월 16일부~9월 12일 부산시청 전시실과 영도문화예술회관, 10월 후쿠오카의 도쿄에서 각각 열린다.

market index <8일>

코스피	코스닥
1,950.60 (+10.72)	548.89 (-3.48)
금리	**환율**
2.85 (변동 없음)	1021.50 (-1.50)

한 직장 재직기간 평균 2년 10개월 그쳐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평균 3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직장인 854명을 대상으로 '한 회사 평균 재직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년 10개월에 그쳤다고 8일 밝혔다.

경력 10년 이상인 직장인(129명)의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은 평균 4년11개월로 5년을 넘지 못했다.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장인(246명)은 평균 3년 4개월에 그쳤다. 경력 5년 미만의 직장인(479명)은 한 회사에서 평균 2년 일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의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은 3년4개월로 여성(평균 2년 5개월)보다 조금 길었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한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3년이상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지나치게 짧은 근무기간은 재취업할 때 조직 적응력이나 성실성 등의 면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뉴스

금화로 만든 시계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에서 열린 제5회 워치&주얼리 컬렉션에서 시계 업체 바쉐론 콘스탄틴이 1억에 다른 코인워치(기운데)를 비롯한 다양한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KFC사업 매각

● 두산 자회사인 DIP홀딩스는 사모펀드인 CVC캐피탈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B.V.'와 SRS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SRS코리아는 KFC 사업을 하는 두산 계열사다. 매각 금액은 1000억원으로 양사는 6월까지 양도작업을 마무리하고 거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세환기자

골프존 끼워팔기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9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염주영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쇄인	당 규 호
사장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명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 자 센 터	02)721-9888

1990년 5월 발행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000

30대 그룹, 수조원대 소송 '몸살'

피소 금액 9조6천억 규모…삼성이 30%

국내 30대 그룹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메머드급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그룹이 현재 손해배상 등으로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5400여 건, 소송가액은 9조6000억 원에 이르며,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송사에 시달리는 그룹도 절반인 15개에 달한다. 특히 전체 피소금액의 30% 가량은 삼성그룹 몫이다.

8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 피소금액은 9조5803억 원이었다. 피소 한 건당 소송가액은 18억 원이었다.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50조5000억 원의 19%나 되는 규모다.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삼성그룹은 2323건의 주요 소송에 피소금액은 2조6947억 원이었다.

30대 그룹 전체에서 건수로는 43.5%, 금액으로는 28.1%의 비중이다.

삼성의 피소 금액 대부분은 2009년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 28개 계열사에 제기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 채권단은 지난 2011년 삼성생명 상장 지연과 관련한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으로 2조2300억 원을 요구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피소된 특허소송은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2위는 포스코그룹. 지난 2012년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원 대의 기술유출 소송을 당하는 등 총 피소금액이 1조3880억 원(주요 소송건수 41건)이었다.

3위는 코오롱그룹이다. 미국화학업체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요구한 손해배상금 9500억 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 49건을 합쳐 총 피소금액이 1조 원이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원심 파기 후 재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4~5위는 현대그룹 9930억 원(60건), 대림그룹 5500억 원(139건)이다. 이어 대우건설(4000억 원, 179건)→현대자동차(4200억 원, 200건)→두산(3900억 원, 8건)→금호아시아나(2190억 원, 91건)→LS(2160억 원, 36건)그룹 순으로 피소 금액이 컸다.

또 동부(2020억 원), 한화(1710억 원), LG(1580억 원), KT(1350억 원), 현대중공업(1130억 원) 등도 피소금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김학균기자 kayn@metroseoul.co.kr

현대차 브랜드 체험관 개관 현대자동차가 업계 최초의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모터스튜디오를 서울에 개관한다. /현대차 제공

팬택 베가 아이언2 출시

팬택이 자체디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를 8일 공개하며 위기 타개에 나섰다.

팬택은 이날 상암동 팬택 R&D센터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12일부터 베가 아이언2를 이동통신3사를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 지속된 대규모 적자로 많은 분들이 팬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지난 1~2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베가 아이언2 발표 이후 '팬택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말이 화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가 아이언2는 블랙바디계열은 골드컷, 레드컷, 실버컷 등 3가지, 화이트바디계열은 샴페인 골드, 로즈 핑크, 샤이니 실버 등 3가지의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돼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5.3인치 대화면에 퀄컴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 3220mAh 스마트폰 최대 용량 배터리, 7mm대 두께와 152g의 무게로 한 손 사용성이 강화됐다. /이재영기자 ry0401@

북미보다 5만원 싼 소니 스마트폰

최첨단 성능 스펙에도 원화 강세 영향

8일 소니가 최신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를 국내에 출시하자 업계가 술렁거렸다. 가격을 79만9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보다 저렴한 것으로 북미의 경우 531 달러(아마존 기준), 우리돈으로 약 84만9300원이며 유럽은 600유로, 약 85만3000원이다.

한국에 풀린 소니의 첨단 스마트폰이 5만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유명 브랜드가 각축을 벌이는 북미 시장보다 싼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소니가 최근 국내 환율 시장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원 달러 환율은 1022.5원에 마감하면서 2009년 8월 이후 처음 1020원대로 떨어졌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이야기인 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은 싸진다.

'엑스페리아 Z2'의 첨단 스펙을 감안하면 이같은 가격은 더욱 놀랍다.

동급 최고 수준의 방진·방수 기능을 적용해 변기나 세면대에 기기를 떨어뜨려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

207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 스마트폰 최초의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기술, 밝고 풍부한 색감의 소니 TV 디스플레이 기술, 스크린을 두 번 터치해 스마트폰을 깨우는 탭투웨이크, 배터리 절전 기술, 스태미너 모드 등 상품성이 전작에 비해 향상됐다. /서상훈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종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감감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희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봄·가을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현위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싱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왕이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기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과학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행복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저축은행 불황 터널 빠져나올까

1분기 영업실적 개선 · 자산건전성은 걸림돌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자산건전성등이 불황을 벗어나려는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2013 회계연도 1~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4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8964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적자폭이 4563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당기 순손실이 줄어든 것은 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으로 부실 여신이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039억원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적자 저축은행도 모두 41개사로 지난해 보다 13개 줄었다.

특히 올 1~3월 중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1·2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중형 저축은행들의 미이익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000억원 미만 소형 저축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손실이 61억원에서 90억원으로 다소 커졌다.

소유구조별로는 대주주가 개인이거나 일반기업인 저축은행은 이익을 낸 반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사 등 금융기관 소유 저축은행은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3월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3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부채가 33조9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하고, 자기자본이 3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해 전체적인 재무 상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은 SBI계열 저축은행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말 대비 1.99% 포인트 상승한 13.15%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업계도 중·저금리대 신용대출 시장 공략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분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20.4%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0.2%포인트 악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0.4%p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1.2%로 0.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순손실이 축소되고 BIS 비율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며 "특히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이나 개인 또는 일반기업 소유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일부 저축의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중개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olive0303@metroseoul.co.kr

휴가철 화분관리 이렇게…

전순이 주부 경제학

향긋한 봄바람 산들산들 불면 가족과 주말내내 캠핑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자연을 벗 삼아 요리도 즐기고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충분하다.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울 때면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바로 '화초'다. 집을 며칠 비우고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들은 곧 죽는다. 작은 화분 속에 남아 있는 수분만으로는 말라죽기 십상이다.

우선 집을 장시간 비울 때는 화분은 직사광선을 받는 베란다를 피해야 한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안쪽에 들여 놓아야 한다.

주말을 이용한 짧은 휴가라면 물을 흠뻑 주면 된다. 그러나 휴가가 길어질 때는 화분을 모두 목욕탕에 모아두고 목욕탕 문을 열어둬 통풍이 되면서 습기가 오래 가도록 한다.

또 화분 옆에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에 적신 수건을 화분 흙과 양동이 물에 걸쳐 두면 좋다. 이렇게 하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물이 조금씩 공급되기 때문에 화초가 말라 죽지 않는다. 물을 담은 그릇에 화분을 담아 화분 밑으로 조금씩 물을 빨아들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화분에 물을 준 후 신문지를 물에 적셔 흙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면 흙이 수분이 더디게 증발된다. 이밖에 페트병에 작은 구멍을 뚫어 화분 위에 한방울씩 물이 떨어지도록 하거나 화분 자동급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정인지기자 ininji@

민영, 소형주택 건설의무 폐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안에서 이런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폐지해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했다.

/김두탁기자 kimdt@

HD보다 4배 선명한 스마트폰 LG디스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5.5인치 스마트폰용 쿼드HD AH-IPS LCD 패널 제품이 덕책 세계적 인증기관인 튜뷔 넴코로부터 국제 2종을 획득하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가격 낮춘 펜트하우스, 잘나간다

수십억 호가 옛말… 5억원대 분양가도 나와

지난해부터 불어온 아파트 작대기 중의 '펜트하우스' 청약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도권·지방을 불문하고 분양되는 펜트하우스마다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 행진을 벌이고 있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서 선보인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펜트하우스는 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경쟁률 1.54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해당 아파트 최고 청약률이기도 하다.

또 화성산업이 대구 침산동에서 분양한 '화성파크드림' 펜트하우스가 1순위에서 3.7대 1로 마감됐고, 최근 중흥건설이 세종시 3-2생활권 M4블록에 공급한 '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도 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보다 펜트하우스가 먼저 마감되는 단지까지 등장했다. 유승종합건설이 인천 구월 보금자리지구 S-2블록에 분양한 '한내들 퍼스티지' 펜트하우스는 4가구 모집에 9명이 접수해 마감됐지만 전용면적 84㎡는 순위 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현대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에 공급한 '목동 힐스테이트' 역시 펜트하우스 2가구에 39명이 몰려 1순위에서 청약을 끝냈다. 반면,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84㎡의 일부 타입은 미달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펜트하우스가 이처럼 인기있는 주거상품으로 변신한 배경에는 '고급형'에서 '보급형'까지 제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찾는 수요층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몇 년 전까지 펜트하우스는 초고가 대형아파트로 지어져 수요층이 한정돼 있었다"며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면적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보급형 펜트하우스를 공급하면서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흡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침산 '화성파크드림'과 구월 '한내들 퍼스티지'의 펜트하우스 가격은 각각 7억원대, 5억원대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 분양해 163대 1로 마감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펜트하우스도 9억원대였다. 한때 수십억원을 호가했던 가격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던 펜트하우스가 요즘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산호기자 pscl@

삼성SDS, 연내 상장한다

이달 대표주관회사 선정… 글로벌 ICT서비스 기업 도약

윤상우 삼성SDS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SDS가 이달 중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연내 기업공개(IPO)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8일 이사회를 열고 연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윤상우 삼성SDS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이날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상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상장은 이달 중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공모방식 등을 결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무는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이달 중 결정되는 주관회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연내에는 상장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은 공공 IT프로젝트에 참여가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삼성SDS 역시 지난해 국내 공공시장과 대외 금융IT시장 철수를 선언하고, 해외물류 IT, 모바일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삼성SDS가 지난해 추진한 삼성SNS와의 합병 역시 이런 취지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국내 공공시장 참여 제한으로 국내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출현, IBM·액센추어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등을 고려, 과감한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삼성SDS는 글로벌 사업구조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상장을 결정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자금력을 끌어올린 뒤 신성장 영역에서 글로벌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내외 M&A 및 사업 제휴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 중국의 웨이보 등 IT기업들도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상장을 추진한 바 있다.

윤 전무는 "기존에는 국내 사업만 하다보니 여유도 있고 굳이 상장에 대한 의지가 없었지만 글로벌 사업을 본격히 하다보니 자본확충, 글로벌 사업 제휴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상장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상장 이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적극적인 IR 활동으로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동수 삼성SDS 사장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ICT서비스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신성장 기술을 확보해 통신, 헬스케어, 리테일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家 이재용 체제 굳히기

후계구도 정리 실탄 분석

삼성SDS가 8일 연내 상장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결정이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삼성SDS의 상장 결정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후계구도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약 4조~5조원의 상속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S 상장이 이 부회장의 자금 확보로 이어지면서 이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SDS 지분은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22.58%, 이 부회장이 11.25%, 이부진 사장 3.9%, 이서현 사장 3.9% 등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나눠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SDS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SNS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높아지고 이부진·이서현 사장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자금 확보 비중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삼성SDS는 지난 7일 기준 장외 거래가격 14만9500원으로, 기업가치는 10조80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계는 삼성SDS 실제 상장 가격이 9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장 후 상승세를 이어가 14만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에 삼성SDS 상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SDS의 상장 결정은 해외사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자본 확보와 삼성그룹 내 후계구도를 굳히는 두가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기자

환율하락 비상 걸린 한국 경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30원 아래로 내려갔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22.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화 하루 전인 7일 연 저점인 1022.5원보다 0.1원 오른 수치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 3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며 "최근 5거래일간의 절상 속도가 유지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곧 1000원에 도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국내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선박수주 급감… 우려 수준

외환보유액 10개월째 사상 최대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558억5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5억 달러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철강/조선

환율하락으로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철강재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포스코는 일부 수출 경쟁력 약화가 있을 수 있지만 포스코를 포함한 대다수의 철강업체들은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를 싸게 수입할 수 있어 원가 절감의 호기로 보고 오히려 환율 하락을 반기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쇳물의 주원료인 철광석과 석탄 등을 수입하는 철강업계는 환율이 하락하는 만큼 원가를 절감 할 수 있어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원화 강세로 철강업체들은 수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조선업체들도 원화 강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업체들은 환율 변동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환헤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환율이 떨어져도 크게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 조금이지만 해도 호조를 보이던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조선업체들은 환율 하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조선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8%나 급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이 계속될 경우, 업계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imdt@

금리 동결 우세 속 인하론 '고개'

금융

원화 강세 파장 고려

원·달러 환율이 5년9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원화 강세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하론도 거론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가 5월에도 현 수준(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기준금리 조정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주요국의 금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적절한 시점에 금리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를 내릴 이유도 올릴 이유도 없다"면서 "1990년대 일본이 구조적인 경기 악화를 무시하고 전월비 수치만 보다가 실기했듯이 한국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석한다면 지표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근거로 들며 "한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와 성장 흐름이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 4분기는 돼야 금리 인상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환율 하락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 회복세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 통화 유동성이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수출 전략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업계 변동폭 '예의주시'

전자

전자업계가 환율 변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는 환율이 10% 하락하면 분기 순이익이 7300억원, LG전자는 1000억원이 줄어든다.

다만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원자재 가격도 함께 하락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은 희석될 전망이다. 특히 결제 통화가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등 다변화돼 있어 당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이 장기화하면 타격은 심각할 수 있어 전자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도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개별회사의 환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 보다 본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지난 1분기 환율 영향과 주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가전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 가량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환율 급락 추세에 대한 방안을 살피는 한편, 환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아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외화자산과 부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 중이고 현지생산기지 구축 등 대안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

수출주력 현대·기아차 타격 '불보듯'

자동차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완성차업계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에도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 초 사업계획에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050원으로 시장 예상(1060원)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7일 원·달러 환율이 1022.5원으로 마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현대차는 1200억원, 기아차는 8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2014년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신흥국의 환율 상승 등 환율 리스크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들이 발생해 수익성 개선 폭이 둔화됐다"며 "하반기에는 1분기에 급등한 신흥국의 환율이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판매 법인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과거와 같이 한 방향으로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장단기 사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경향이 심화돼 3~6개월 후의 환율 전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전,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률 비교하면 2005~2007년에 1.12%이던 것이 2010~2012년에는 2.24%로 높아졌다. 환율 변동성이 심해지면 투자 및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를 위축시킨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채산성 관련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물량을 축소하거나 채산성 하락 또는 환헤지 비용 등을 수출단가에 전가시켜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환율변동성이 1단위 증가하면 우리나라 총 수출물량 증가율은 0.15% 포인트 가량 하락한다. /정하제기자 [illegible]@

왼쪽부터 프린세스 메이커, 학교2014 반갑다 친구야, 퍼즐버블

엄마·아빠때는 이거하고 놀았어!

퍼즐버블·프린세스 메이커…'추억의 게임' 귀환 눈길

추억의 게임들이 속속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오락실을 주름잡았던 게임들은 물론이고 학창시절의 향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임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용용'의 재미 그대로

오락실의 '추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버블버블'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다. 구미코리아가 최근 선보인 '퍼즐버블'은 오락실 게임 '버블버블'의 모바일 버전이다. 주인공인 공룡이 같은 색의 물방울을 모아서 터뜨리는 원작의 재미를 그대로 맛볼 수 있다. 특히 모든 버블을 없애는 미션, '버블 속 적군을 구하는 미션' 등 90여종 이상의 스테이즈를 추가해 게임성을 높였다. 게임 도중에 등장하는 특수 물방울 등 다양한 방해요소도 긴장감을 더한다.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도 손쉽게 게임의 재미에 빠져들 수 있다.

◆ '딸 바보'의 귀환

1990년대 게이머들을 '딸바보'로 만든 전설의 PC게임 '프린세스 메이커'도 모바일로 변신했다. 지난 2월 엠게임이 출시한 '프린세스메이커 포 카카오'는 출시 하루 만에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딸바보' 열풍을 또다시 일으킬 조짐이다.

이같은 인기는 나만의 딸을 개성있게 키우는 기존 게임의 재미에 3D그래픽을 이용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표정 변화에 깊이를 더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특히 카카오 게임하기의 다른 이용자와 딸이는 딸 키우기 경쟁의 재미도 쏠쏠할 수 있다.

기존 프린세스메이커의 스케줄 관리, 우사수행 등의 콘텐츠도 게임하는 재미를 더한다.

◆학창시절 추억 가득

'수학의정석', '성문종합영어' 등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게임도 등장했다. CJ E&M 넷마블의 '학교2014 반갑다 친구야'는 게임 속에 동창찾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무너져가는 학교를 전학생이면서 학생회장이 된 주인공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만화 같은 게임 줄거리 속에서 오바일 동창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 이름을 입력해 실제 동창들을 별도 친구로 추가해 동아리를 만들고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덕분에 구글 플레이 인기 무료 1위에 오르며 게이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서믿음기자 koniee@metroseoul.co.kr

류현진·추신수 스마트폰서 '플레이'

게임빌 'MLB 퍼펙트이닝' 라이선스 취득

게임빌은 8일 MLB 정식 라이선스 대작 'MLB 퍼펙트이닝'(사진)을 전 세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야구 게임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게임빌이 MLB 콘텐츠를 장착해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 주목된다.

게임빌은 앞서 미국 MLBAM(Major League Baseball Advanced Media), MLBPA(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게임사는 물론 해외 게임기업이 MLB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취득해 모바일게임으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게임빌은 몇 년 전부터 MLB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이라는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MLB 사무국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류현진·추신수 듀오가 MLB에서 맹활약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모바일 게임이 MLB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MLB 퍼펙트이닝'에는 총 30개 MLB 구단과 실제 소속 선수가 총출동한다.

국내 프로야구를 기반으로 한 '이사만루' 시리즈의 엔진을 장착한 이 게임은 실제 선수들의 고유 오습과 동작을 디테일하게 반영했다. 실제 북미 지역과 한국에서 진행된 베타테스트에서도 이와 같은 유저들의 호응을 확인한 바 있다.

MLBPA 마이크 아민 이사는 "게임빌에서 전 세계 모바일게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준 높은 게임을 선보였다. 야구 팬들에게 권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LBAM 제이미 리스 부사장은 "글로벌 야구 팬들이 사랑하는 팀과 선수로 즐길 수 있는 게임 'MLB 퍼펙트이닝'에 주목하라. 깊이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빌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훈기자 zen@

게임 규제로 NHN엔터 매출 14% ↓

게임 규제 여파로 메이저 게임사의 매출이 적지 않게 감소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8일 1분기 매출 1521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순이익 1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16.8% 하락했으나 당기순이익은 87.7% 늘었다. 매출이 줄었지만 지급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등 주요 영업비용이 함께 감소했고 순이익은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관계사 투자이익의 증가로 상승했다.

1분기 게임 매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PC온라인이 1028억원으로 70%, 모바일이 443억원으로 3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국내 게임 매출이 985억원으로 67%, 해외 매출이 486억원으로 33%의 비중을 보였다.

2월 24일부터 실시된 웹보드 게임 규제 여파로 관련 게임 이용 지표가 3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중 실제 규제가 반영된 것은 1개월 남짓 기간이지만 PC온라인 게임 부문 매출이 전 분기대비 13.9% 감소됐다.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는 "웹보드 게임 규제 영향과 PC게임 유저 감소로 실적이 하락했지만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 와라편의점, 가디언스톤 등이 연이어 히트하는 등 국내외에서 모바일 게임 사업이 성장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NC, 유니폼에 게임 로고

NC다이노스 유망주들이 엔씨소프트를 알린다.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이 엔씨소프트의 게임포털 서비스 '플레이엔씨(plaync)' 로고가 새겨진 퓨처스리그 유니폼을 7일 공개했다.

새 유니폼은 정규리그와는 별도로 퓨처스리그에서만 착용한다. 상의는 NC 다이노스의 고유 컬러인 마린블루에 오기업 엔씨소프트의 게임포털 서비스 브랜드명인 plaync 로고를 부착했다. 하의는 백색과 유색 2종으로 홈·원정을 구분한다.

유니폼 상의 정면에는 엔씨소프트와 plaync 로고, 왼팔에는 엔씨소프트의 기업정신인 우주정복 로고, 후면에는 엔씨소프트가 발간하는 모바일매거진 버프(BUFF) 로고가 붙어있다.

NC 다이노스는 2014 시즌 개막 경기부터 '우주정복(Conquer the Space)' 로고가 부착된 타자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에서 신영옥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선율에 맞춰 이태리의 가곡 '입맞춤'을 선사하고 있다(왼쪽).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연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한제훈 김포드데이블

마음 어루만진 감동의 '힐링' 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한 5월 어버이날 공연
부모 의미 되새기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 애도

여느 해와 달리 국민적인 큰 슬픔을 안고 맞게 된 어버이날. 아름다운 신영옥의 목소리와 클래식 선율이 가족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가 어버이날인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매일 아침 출근길의 동반자인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의미로 마련한 자리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여자경 음악감독의 지휘로 펼쳐진 이날 음악회는 공연장이 꽉 찬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편 슬픔에 젖은 마음에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힐링' 곡들로 꾸며졌다.

음악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뜻에서 진중하고 애잔한 선율이 인상적인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로 막을 열었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이 곡이 끝난 뒤 연주자들과 관객은 박수를 치는 대신 앉은 자리에서 묵념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꼽히는 신영옥이 어꾸 장식도 없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는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애련하고 구슬픈 선율의 '아베 마리아'를 불러 희생자의 넋을 달랬다.

본 공연은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페라 '비앙카와 페르난도' 중 '일어나세요 아버지' 등 부모님에 대해 노래하는 곡들로 채워졌다.

1부 중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가 등장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선사했다. 이 곡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와 개인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연주가 끝나자 관객은 큰 박수를 보냈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아름답고 비극적인 선율로 연주한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간주곡이 2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신영옥이 영화 '파리넬리'에 삽입돼 유명해진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를 애절하게 불러 관객의 눈시울을 적셨다.

2부의 협연자로는 하피스트 김아람이 나서 글리에르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E장조, 작품74'를 연주했다. 러시아의 고전주의와 남만주의의 음악성이 잘 나타난 곡으로, 관객은 하프의 몽환적인 선율을 들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정덕수 시인이 쓴 시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한계령'이 신영옥의 목소리와 만나 울려퍼질 때에는 공연장의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관객은 숨을 죽이며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로 시작되는 구슬픈 노랫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태리의 가곡 '입맞춤'이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관객은 공연장을 떠나지 않았다.

몇 분간 이어진 앙코르 요청에 신영옥은 다시 등장했고 "많이 힘드신 부모님들께 위로를 건넨다"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드보르작의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물을 훔치며 노래를 잇지 못하다 목이 멘 목소리로 불러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하피스트 김아람이 글리에르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E장조, 작품74'를 연주하고 있다(위). 관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공연장을 찾아 매표소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아래). /손진영기자 son@

이날 공연장에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중년의 아들, 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부 등 많은 가족 관객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용인 수지에서 자녀, 손녀와 함께 온 이정훈(71·남)씨 부부는 "신영옥씨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탄했다. 세월호 참사로 마음이 아픈데 '한계령'을 들을 때 가슴이 메었다"라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tak6427@metroseoul.co.kr

www.seoulfood.or.kr

SEOUL FOOD 201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4. 5. 13(화)▶16(금) KINTEX

전시참관 TIP

TIP 1	KINTEX 1관은 B2B 전시회이므로, 식품업계 관련 종사자만 입장 가능(명함 필 지참) ※ [illegible] 입장 불가 KINTEX 2전시장은 B2C 전시회로, 모든 분들이 입장 가능
TIP 2	홈페이지에서 참가업체 및 위치를 사전 확인 후 효율적인 동선 파악 가능
TIP 3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 하세요! • 승차지점 : KINTEX 제 1전시장 3홀 입구 국기게양대 • 하차지점 : KINTEX 제 2전시장 7A홀 좌측 하역장
TIP 4	평균 관람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이므로, 폐장 2시간 전에 도착하셔서 전시회를 관람해주세요.

■서울국제식품기기전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 ■서울국제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전 ■서울국제식품소재 및 첨가물전 ■서울국제건강기능 및 유기농전 ■서울국제디저트 & 음료전 ■국제관(SEOUL FOOD&HOTEL) ■그린마켓(GREEN MARKET) ■서울국제조리학교&학원전

| 주 최 | kotra [illegible] | 공동주최 | KFIA ALLWORLD EXHIBITIONS kem

관절 및 인대 질환, 신경통증, 디스크 질환 등 만성 통증

진화된 신개념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및 도수 치료로 끝!

유명 여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관절지 내측 건초염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자꾸 재발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심해 결국 S씨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중인 가수 K씨의 부친인 G씨의 소개를 받아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에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최현우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으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로 S씨를 치료했다. 또 인대 치료 주사를 통해 염증을 치료하고 부종을 제거했으며 치료 후 S씨의 상태는 바로 호전됐다.

이와 함께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인대 및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2회씩 2개월간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치료 위한 시스템 구축

이처럼 1년 전부터 시행한 강남초이스병원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게다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한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다. 내원 환자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실시하는 것.

특히 강남초이스병원은 질환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를 선진 체계화했다.

더욱이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약해진 관절·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 및 관절을 안정시키는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인근 본원 외에 여의도역, 교대역, 홍대입구역 부근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 클리닉은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합리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교대점 02)525-2900

/홍재훈기자 hoo...@metroseoul.co.kr

뷰티업계, 콜라보레이션 활발

한정판 소장가치 높아 인기

최근 뷰티업계에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마케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콜라보레이션이란 다른 두 개 이상의 브랜드끼리 혹은 예술 전문가들과 브랜드가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 많은 업체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제품이나 신제품에 아티스트의 작품을 입힌 한정판은 소장가치가 높고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슈에무라는 최근 사진작가 미카 니나가와와 협업을 통해 '미카 컬렉션'(사진 왼쪽)을 출시했다. 미카 니나가와는 '뷰티 원더랜드'라는 가상의 공간 속 ▲호기심 ▲금단의 열매 ▲노래하는 숲 ▲달콤한 꿈 등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선명한 색감과 독창적인 감수성이 담긴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다.

에뛰드하우스는 '진주알 맑은 매직 에니 쿠션'에 장착해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 '신데렐라 콜라보레이션' 을 한정 출시했다. 이 케이스에는 신데렐라의 모습은 물론 유리구두, 시계 등 신데렐라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품들이 한데 어우러진 디즈니의 신데렐라 디자인이 적용됐다.

토니모리의 경우 아티스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트스타코리아'를 공식 후원하며 프로그램 출연자 중 하나인 아티스트 로나와 함께 '비씨데이션 콜라보 한정판'을 출시했다. 아트스타코리아의 콜라보레이션 서바이벌 미션을 통해 만들어진 이번 한정판은 로나의 강렬한 색감과 위트 있는 이미지로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이 표현됐다.

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브랜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 최근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 뷰티 멀티플렉스 스킨알엑스는 디자이너 에디강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아트워크를 제작했다. 에디강이 디자인한 새 브랜드 아트워크 이미지는 요정을 모티브로 해 언제나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처럼 늘 고객과 함께하며 고객을 챙기는 스킨알엑스의 브랜드 모토 'SKINRx on you'를 반영해 탄생됐다.

실제로 협업을 통해 매출이 크게 신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오주르 르주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헤라의 '오주르 르주르 컬렉션'(오른쪽)은 지난달 1일 출시 직후 단 5일만에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고 전년 동기 대비 수량기준 105%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UV 미스트 쿠션'은 눈과 얼음 모양의 패턴이 큰 인기를 끌며 출시 전부터 사전예약 1만개를 기록하고 출시 하루 만에 단일 품목 매출 7억원을 올리기도 했다.

/정혜인 기자 h_une0404@metroseoul.co.kr

실용적 아이템이 대세

가정의 달 선물 트렌드 변화 바람

5월 각종 기념일에 선물은 뭣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만 최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실용적인 아이템이 각광받는 등 선물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인기선물 아이템 중 하나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많은 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자외선 차단제가 선물로 유용하다.

아토팜의 '수딩 선 로션'은 SPF 50의 자외선 차단제로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해 장시간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정의 달에는 나들이용 육아용품 선물도 인기다. 페두니아 파플 바텀 기저귀 가방은 미국 유명 디자이너 드네 존스가 직접 디자인한 화려한 패턴의 백팩 모양이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이템도 선물로 좋다. 쎌바이오텍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듀오락 골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6종과 함께 비타민 6종이 들어 있어 별도로 비타민을 챙겨 먹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연령 구분 없이 온 가족이 섭취 가능하다.

/정혜인 기자

GD웨딩, 미스코리아 웨딩패키지 시즌2 출시

웨딩패키지 선발대회

GD웨딩(www.gdwedding.co.kr)은 고객 맞춤형 웨딩패키지인 '미스코리아 웨딩패키지 시즌2'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고객이 스튜디오와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취향대로 구성할 수 있는 패키지다. 패키지 안에는 스튜디오 원규 달빛스무터, 드레스 알렉산드라 라포엠, 헤어와 메이크업 김선진끌로에 라끌로에 등이 마련돼 있다.

또 패키지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 선호도 조사를 겸하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가장 가자이자 사 위원이 된다. 가장 좋은 고객의 선택을 받은 웨딩패키지가 진 선 미가 된다. 진 선 미에 선정된 웨딩패키지를 선택한 고객 전원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다. 문의: 02)3448-3201 /정혜인 기자

핸드드립 커피 무료 세미나

메트로신문·어라운지 공동 24일 진행

메트로신문이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최대 커피 유통 전문 브랜드 '어라운지(Arounz)'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어라운지 선유도점에서 열립니다.

2012-2013 WBC 국가대표 바리스타 선발전 3위에 입상한 어라운지 소속의 백상욱 바리스타가 핸드드립 커피의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깊이 있게 교육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향긋한 드립 커피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메일(coffeearounz@naver.com)에 간단한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과 신청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2명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5일 개별 통보됩니다. 기타 문의 전화 070-7115-0326

metro 어라운지

국화 성분 추출 살충제 살충제 브랜드인 홈키파 홈매트가 8일 서울 세종로에서 손예진 홈키파 청정의 비밀 출시 행사를 열었다. 이 제품은 국화의 일종인 제충국에서 추출한 100% 천연 살충 성분인 피레트린(Pyrethrin)을 사용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홈키파 홈매트 제공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 시즌3 개장

교통안전 등 체험교육 놀이터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의 배경인 '브룸스타운'을 현실로 재현한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 시즌3가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새롭게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 휴관).

이번 시즌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건강놀이터 ▲구조대 훈련 등의 용감한 미션 체험 ▲무선 미니카를 활용한 교통안전 체험 ▲부모님과 함께 쿠키와 배지를 만드는 패밀리 스쿨 ▲영상으로 폴리를 만날 수 있는 브룸스 극장 등 5개 테마의 놀이시설이 마련됐다. 또 현장 관람객 대상으로 클럽메드와 함께하는 온 가족 해외여행 응모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poliplay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6219-3311

/김학철 기자

외식업계 "여성 야구팬을 홀려라"

눈도 입도 즐기기… 新 소비형태 정착

프로야구가 개막한지도 어느덧 한달여가 지났다. 매 경기 각 구단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날씨가 좋은 5월,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장을 찾는 재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기를 관람하며 즐기는 먹거리다.

최근 야구장을 찾는 여성팬들이 점점 늘면서 치킨이나 피자 등 기름진 패스트푸드 일색인 야구장 먹거리를 피해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더한 웰빙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스시도시락부터 호텔 셰프의 수제 도시락까지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외식업계의 테이크아웃 메뉴들이 야구장을 찾는 여성관객들에게 새로운 야구장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도시락은 저칼로리 스시도시락이다. 회전초밥레스토랑 스시로는 야구장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누룽초밥 도시락'(사진)을 선보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야구장에서도 '제대로' 된 든든한 한끼 식사를 원한다면 신세계의 프리미엄 식품관인 'SSG 푸드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조선호텔 도시락이 있다. 호텔 셰프가 직접 조리한 프리미엄 럭셔리 도시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간단하게 허기만 채우고 싶다면 본도시락의 샐러드 메뉴가 제격이다. 싱싱한 야채 위에 부드럽고 고소한 계란을 올린 '에그 샐러드'와 '블랙페퍼돈까스 샐러드', '케이준 치킨 샐러드'까지 총 3가지 종류로 개당 3300원과 4500원의 부담 없는 가격이다.

샐러드보다 더 가볍게 배를 채우고 싶다면 풀코리아의 '후룻볼'을 추천한다. 파인애플, 트로피칼, 복숭아 총 3가지 종류인 '후룻볼'은 100% 과일주스에 과일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넣은 웰빙제품이다.

경기장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골수 팬들에게는 한 손에 들고 먹는 샌드위치를 추천한다. 중독성 강한 리코타 치즈로 미식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카페마마스의 '릴랍샌드위치'는 가격대비 알찬 구성으로 샌드위치 하나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한식의 새 문화를 만들어가며 인기를 끌고 있는 밥버거도 야구장 먹거리로 제격이다.

/정영일기자 ume@metroseoul.co.kr

'요우커(游客)', 日 누르고 마트 점령

사상 첫 백화점·면세점에 이어 '큰 손'으로

중국 관광객이 백화점과 면세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 관광객을 누르고 국내 대형마트에서도 큰 손으로 떠올랐다.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이 겹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9일 간 외국인 매출을 집계한 결과 중국인 매출이 일본인 매출을 1.5배(72.0%) 이상 넘어섰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년도 매출과 비교해도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51.5% 늘었지만 일본인 매출은 37.6%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롯데마트의 중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매출을 21.8% 넘어섰다. 과거 중국의 휴무일, 명절 등에 따라 매출이 엎치락뒤치락 한 적은 있지만 누계 매출로 중국인 매출이 일본인 매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특히 롯데마트를 찾은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성향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롯데마트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6만5000원 정도로, 일본인 관광객의 4만6000원보다 41% 가량 높았다.

/김학철기자 kimc@

편의점 택배, 월요일이 제일 바빠

편의점 CU(씨유)가 지난해 택배(포스트박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주일 중 금요일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반면에 월요일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월요일이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요일 17.7%, 수요일 16.6%, 목요일 15.7%, 금요일 14.8%로 '월고금저(月高金低: 월요일이 가장 높고 금요일로 갈수록 가장 낮음)'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월요일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주말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발송자와 수신자 모두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말이 끝나는 월요일에 택배 물량이 상대적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 주말 택배 이용 비중은 토요일 8.3%, 일요일 6.4%에 그쳤다.

/정혜인기자 hyune@

BAT, 던힐 크리스프 시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가 오는 11일 상큼한 맛의 캡슐이 장착된 14개비 포켓팩 담배인 '던힐 크리스프'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던힐 엑소픽에 이어 출시되는 두 번째 캡슐 제품이다. 지난 4월 출시된 던힐 엑소닉은 당시 한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14개피 포켓팩 및 색다른 맛의 캡슐을 적용했다.

/정영일기자

"색다르고 건강한 먹거리로의 여행"

메트로신문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독자여러분의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메뉴판닷컴과 공동으로 매주 금요일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연재합니다. 메뉴판닷컴(www.menupan.com)은 맛집, 요리 전문 포털사이트로 웹 메뉴판닷컴과 모바일 전국 맛집 등 1000 아이우몬 등의 매체를 보유, 운영 중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항상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표현하는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기성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대체했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우리네 전통 떡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받는 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떡 레시피를 소개한다.

◆단호박떡케이크(2인분)

난이도: 보통 / 열량: 645kcal / 조리시간: 60분

-주재료: 멥쌀가루 400g, 단호박 1/8개

-부재료: 키위·말린대추 각 1개, 방울토마토 7개, 밀감통조림 1/4캔, 체리·딸기 각 2개, 잣·호박씨 약간

-양념: 설탕 40g

1. 멥쌀은 깨끗하게 씻은 뒤 실온에서 8시간 물에 불린다. 물빼기를 한 멥쌀에 적당량의 소금을 첨가한 뒤 한번 빻아 놓는다.
2. 단호박은 4등분으로 잘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속의 씨를 꺼낸 뒤 푹 익도록 삶고 여기에 찐 단호박을 넣은 후 다시 한번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3. 설탕을 섞은 가루를 원형 케이크틀이나 사각형 케이크틀에 면보를 깔고 안친다.
4. 시루에 성형틀을 넣고 스팀을 이용해 35~40분 가량 면보자기를 덮어 찐다.
5. 케이크형 떡을 받침에서 분리한 후 실온에서 식히고 키위 등 부재료를 얹어 장식한다.

◆꿀부꾸미(2인분)

난이도: 보통 / 열량: 184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찹쌀 4컵

-부재료: 물 1.5컵, 식용유 약간, 대추 6개, 밤 8개, 석이버섯 3장, 쑥갓 적당량, 꿀앙금 150g

-양념: 소금 2작은술, 꿀 2큰술

1. 찹쌀은 3~4회 깨끗이 씻은 후 물에 8~12시간 정도 담갔다가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 후 분량의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빻는다.
2. ①을 끓는 물로 익반죽해 직경 6~7cm 정도 되도록 둥글 납작하게 빚는다.
3. 꿀앙금은 직경 1.5cm 정도가 되도록 둥글게 만들어 둔다.
4. 밤은 쉬껍을 벗긴 후 곱게 채를 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뺀 뒤 곱게 채썬다.
5. 석이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비벼 씻어 배꼽을 떼고 물기를 없앤 후 채썬다.
6.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만든 반죽을 넣어 한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가운데 꿀앙금을 넣고 반을 접어 지진 후 그 위에 쑥잎 등을 장식하고 꿀을 발라낸다.

◆밤단자(2인분)

난이도: 어려움 / 열량: 230kcal / 조리시간: 80분

-주재료: 찹쌀가루 4컵, 밤 10개

-부재료: 유자건지 1개, 꿀 3큰술

-양념: 올리고당 40g, 소금 약간

1. 찹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물을 고루 뿌려 찜통에 안치고, 김 오른 찜통에서 25분간 찐다.
2. 유자는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 껍질만 얇게 벗겨 곱게 다지고, 밤은 삶아서 껍질을 벗겨 체에 내린다.
3. 잘게 다진 유자껍질을 밤고물의 1/2과 섞어 꿀 1큰술과 버무린 뒤 밤톨만하게 둥글려 빚는다.
4. ①의 떡은 절구에 꺼서 찰지게 치댄다.
5. 도마에 꿀 1큰술을 바르고 떡을 쏟아서 두께 1cm, 폭 6cm로 기름하게 펴놓는다.
6. ⑤ 위에 ③의 유자소를 얹고 떡을 빚어서 막대 모양으로 만든 다음 3cm 정도씩 손으로 끊는다.
7. ⑥의 떡을 둥글게 빚어 꿀 1큰술을 바르고 밤고물을 고루 묻힌다.

술·담배도 끊고 부른 감미로운 노래

프로 무대 첫 발 디딘 박시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4전5기 끝에 슈퍼스타K5(이하 슈스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박시환(27)이 가수의 꿈을 이뤘다. 슈스케 시즌1부터 5까지 참여하며 간절함으로 노래했던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무대에서 볼트를 꼭 쥐며 노래를 불렀던 박시환이 데뷔앨범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발표했다.

◆ 끝없는 도전의 결실

부산 출신의 중장비 정비공이었던 박시환은 험난했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건설현장·편의점·택배회사 등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가수에 대한 꿈과 열망은 접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시환은 케이블채널 엠넷 '슈스케'의 시즌1부터 시즌5까지 모두 문을 두드렸던 도전자로 유명했다.

시즌4까지는 예선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시즌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시환이 가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노래를 좋아하는 형이 있어서다.

그는 "가장 노래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인디밴드에서 활동하던 형 덕분에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다"며 "지금은 요리사로 일하고 있지만 형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데뷔앨범 최고 제작진 참여

박시환은 데뷔앨범부터 음악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박근태·김도훈·심현보 등 국내 최고의 작곡·작사진이 참여한 박시환의 첫 앨범에는 타이틀곡 '다만 그대를'을 포함한 3곡의 신곡이 담겨있다.

타이틀곡 '다만 그대를'은 브릿팝 기반의 미디엄 템포 곡. 록 장르다. 리드미컬한 반주 위에 떠난 여자를 그리워하는 남자의 심정을 박시환의 섬세한 음색과 감정으로 표현한 곡이다. 고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의 투플구를 샘플링해 아날로그 감성은 극대화하고 있다.

박시환은 "노래를 듣자마자 정말 부르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신인 가수인 내가 '사랑했지만' 이라는 곡을 샘플링한 '다만 그대를'을 불러도 되나 싶어 내가 불러도 되느냐고 물어봤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대를'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창법도 달라졌다. 기존 방송에서는 이야기하듯 노래하다가 후반부에 지르는 록 발라드를 많이 불렀지만 이번 타이틀곡은 가볍게 던지는 듯 불렀다"며 "가장 새로운 부분은 팔셋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적인 변화 이외에도 외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체중은 10kg 감량한 것은 물론 평소 즐겼던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는 "외적인 면부터 내적인 면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고 싶어서 지난 5개월 동안 식단조절과 운동, 노래 연습만 하면서 살았다"며 "2개월 전부터는 하루 한갑정도 피웠던 담배도 끊었다"고 말했다.

> **인디 출신 형 덕분에 꿈 이뤄**
> **데뷔 앨범부터 신선한 도전**
> **"사랑 받는 가수 되고싶다"**

◆ 소극장 공연으로 팬에 보답

박시환은 출중한 외모와 가창력 덕분에 데뷔 전 팬덤까지 생겼다. 지난달 12일 박시환의 첫 데뷔 무대인 SBS MTV '더 쇼 올 어바웃 케이팝' 사전 녹화장에는 300여 명의 팬이 몰려 깜짝 스트 팬미팅이 열리기도 했다. 현재 팬클럽 회원수는 6000명을 넘었다.

그는 "첫 녹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가수로서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팬들 덕분에 가수가 됐고,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수로 남고 싶다"며 "주변에 박시환이라는 가수를 소개할 때 '노래 잘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팬들에게 항상 감사할 뿐이다"는 그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팬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을 자주하고 싶다"며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했다.

/장성은 기자 [illegible]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회춘누아르
꽃할배
수사대
tvN
평균나이 70세
짱짱맨 할배들이 떴다!
오늘 밤 9시 50분 tvN 첫 방송
제작 SSD 이순재, 변희봉, 장광, 김희철, 이초희 김응수, 박은지

꽃할배 수사대 /CJ E&M

마스터셰프코리아 /CJ E&M

아트스타코리아 /CJ E&M

어디서 봤더라? 여전히 美·日 따라하는 TV

해외서 히트한 프로그램 베끼기 손쉽게 시청률 확보하려는 '안일'

해외 유명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베껴 만드는 방송가 관행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첫 방송을 앞둔 tvN '꽃할배 수사대'의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일본 T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린이 경찰'과 유사하다. '꽃할배 수사대'는 하루아침에 70대 노인으로 변한 젊은 형사들과 20대 엘리트 경찰이 원래의 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릴 예정이다. '어린이 경찰'은 중년의 노련한 경찰들이 어린이로 변했지만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두 드라마 모두 특수 화학 물질에 의해 몸이 변한다는 점과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그린다는 부분이 비슷하다. 또 이들을 돕는 20대 젊은 경찰 한 명이 함께한다는 점까지 판박이다.

프로그램 베끼기는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스토리온에서 방영 중인 '아트스타 코리아'는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경합을 벌여 우승자를 가린다는 점이 미국 브라보TV '워크 오브 아트'와 비슷하다. 논란 발생 이유도 똑같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특성상 탈락자 결정에 따르는 논란은 이미 방송 시작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MC 역시 전문가가 아닌 여배우를 기용했다는 것마저 유사하다. 앞서 '워크 오브 아트 2'는 할리우드 여배우 사이나 조가 이끌었으며 '아트스타 코리아'는 정려원이 사회를 맡고 있다.

드라마를 예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여러 명의 케이블 스타를 탄생시킨 tvN '더 지니어스' 시리즈는 일본에서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된 '라이어 게임'과 닮아있다. 폐쇄된 공간에 갇힌 게임 참가자들이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명령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는 콘셉트부터 게임 설명 그래픽, 게임의 내용까지 흡사하다. 드라마에선 게임의 패배자가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떠안지만 '더 지니어스'에선 탈락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물론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마스터셰프 코리아' 등은 포맷을 수입해 온 경우다. 하지만 이에 앞서 유사한 내용의 카피캣 프로그램이 제작된 바 있다. 국내 오디션 열풍을 몰고왔던 '슈퍼스타K'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메리칸 아이돌'을 따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베끼기가 끊이질 않는 원인에 대해 일각에선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져와 시청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연애'로 두근거리는 예능

'두근두근' '연애고시' 익숙하지만 신선

MBC 연애고시

MBC '우리 결혼했어요'부터 종편채널 JTBC '마녀사냥'까지 TV 방송에서 사랑은 가장 대중적인 소재다. 최근 새로 등장한 두 개의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도 다르지 않다. KBS2 '두근두근 로맨스 30일'(이하 '두근두근')과 MBC '연애고시-연애조난자 구출프로젝트'(이하 '연애고시')는 기존 연애 리얼리티 방송을 조금씩 변형해 시청자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고 있다.

'두근두근'은 '이상형과 30일 동안 연애를 시켜준다'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우리 결혼했어요'와 SBS '짝'의 중간 형식을 따른다. 세 연인의 데이트 녹화 장면을 스튜디오에 있는 5명의 진행자가 보면서 서슴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건 '우리 결혼했어요'를 연상시킨다. 이상형을 만나 시간을 보내며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출연진의 모습에선 '짝'이 떠오른다.

그러나 일반인과 유명인의 적절한 조합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다. 송영선 한의사와 최민지 [illegible]는 30대 직장 남녀의 연애 방식을 보여준다. 김주경 축구 코치와 정다은 KBS 아나운서는 30대의 [illegible]적인 사랑을 그린다. 유일한 20대 커플은 배우 박준규의 아들인 박종찬과 연기자 지망생인 김지안이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말을 놓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등의 솔직한 발언으로 진행자들과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다.

이광길 연애 코치는 '두근두근'을 타 연애 예능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가 연애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방송을 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두근두근'의 정규 편성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첫 방송이 될 '연애고시'는 연애에 매번 실패하거나 연애가 어려워 '연애 조난자'라 불리는 연예인들을 위한 솔로 탈출 프로젝트다.

단순한 남녀 짝짓기가 아니라는 점이 신선하다. 방송은 스튜디오에서 남녀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상황을 재연하면서 진행된다. 진재우·노홍철·백지영은 남녀의 심리를 대변하며 연애 조난자인 동료 연예인들의 조언자로 활약할 계획이다.

문경태 PD는 "고시 과정을 통해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이상형을 찾아가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는 누구?

'선택 2014'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무한도전'(사진)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MBC '무한도전'은 앞으로 10년간 프로그램을 이끌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는 '선택 2014'의 후속편을 방영한다.

이날 방송에선 무도 리더 후보에 출마한 멤버 여섯명 전원이 각자의 공약에 맞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이미 정형돈은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을 통해 인연을 쌓아온 아이돌 인맥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7일 그룹 비투비 멤버들은 트위터에 "'무한도전'의 '차세대 리더 후보' 기호 '나' 정형돈을 진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무한도전'을 보장할 걱정없는 후보! 가식없는 후보! 정형돈을 함께 지지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인피니트의 성규와 우현, 걸그룹 시크릿 역시 정형돈 공개 지지에 나섰다.

'선택 2014'의 선거일은 22일이며 이에 앞서 17~18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6·4 지방선거와 똑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는 전국 10개 주요도시에 설치되며 온라인 투표도 병행된다. /[illegible]기자

god 9년 공백 넘은 국민그룹

신곡 '미운오리새끼' 차트 장악

12년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god가 국민그룹다운 위엄을 발휘하고 있다.

데뷔 15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발매된 '미운오리새끼'가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장악했다. 8일 정오에 공개된 god의 '미운오리새끼'는 발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멜론·소리바다·지니·몽키3·벅스 등 거의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다.

음원차트뿐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god와 미운오리새끼가 검색어 차트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SNS에서도 god 컴백과 음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9년의 공백을 무색케 했다.

9년 만의 신곡인 '미운오리새끼'는 히트메이커인 이단옆차기의 작품으로 트렌드나 새로움 보다는 god 특유의 감성적인 화법으로 그려낸 god표 발라드다.

한편 1999년 1집 '챕터 원'의 타이틀 곡 '어머님께'로 데뷔한 god는 2002년 5집 '챕터5'를 마지막으로 윤계상이 빠진 채 박준형·데니안·손호영·김태우 4명의 체제로 활동을 이어왔다. 2005년 7집 '하늘속으로' 이후 활동을 중지하고 개인활동을 펼쳐왔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Chile

República Glaciar: celebró su primer matrimonio

metro Canada

L'homophobie plus répandue qu'on le croit

동성애 혐오증'으로 폭행 사례 많아

캐나다 퀘벡에서 동성애 혐오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은 한 동성애자 이익대변 단체의 주도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56명이 동성애 혐오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958번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성애자 보호 단체는 "동성애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거나 차별한 사례가 공식 통계를 통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metro France

Moins d'alcool au vol

Sécurité routière

교통사고, 술보다 휴대전화가 문제

프랑스에서 지난 10년간의 교통사고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년 동안 절반이 감소했다. 반면 교통사고 유발행동 가운데 2004년 18%에서 올해 34%로 그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이들 중 42%는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metro Brazil

Aos 10 ano

열 살 배가 작가님 세 번째 책 집필 중

브라질에서 열 살 배기가 작가로 데뷔해 화제다.

벨라 벨라 시의 태움원두 계량 시립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브레누는 읽고 쓰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이다. 언젠가 작가가 되기를 꿈꾸며 현재 세 번째 책을 집필 중인 그는 벌써부터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책 읽는 게 정말 좋아요. 책은 또 다른 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라며 "여섯 살부터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등장인물을 지어내면 꼭 제가 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즐거워요"라고 집필의 즐거움을 밝혔다.

브레누의 어머니 에지니지 두스(44)는 자신의 아들이 항상 문학과 글쓰기에 흥미를 보여왔으나 이를 단순히 '어린 아이의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겨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이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지금 보니 작가 재능이 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브레누는 '아이스크림과 슬리퍼'와 '소녀, 자연의 손길'이라는 작품을 썼지만 이를 출판하지는 못했다.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종이에 연필로 글을 썼어요. 하지만 제가 쓴 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는 컴퓨터로 작성할 거예요"라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브레누는 글쓰기 이외에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교육적인 책을 읽고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라며 자신의 꿈을 밝혔다.

브레누는 현재 책을 출판하기 위해 후원자를 찾는 중이다. /정리=손유리 인턴기자

해발 3000m '얼음 공화국' 결혼식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 맞서 그린피스, 환경보호·빙하 사랑 이벤트

"얼음 공화국 법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합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칠레 중부의 눈 덮인 안데스 산맥. 최근 해발 3000m 빙하 위에서 '얼음 공화국'의 첫 결혼식이 열려 화제다.

이색 결혼식의 주인공은 니콜레 포소(27)와 엔리케 칸타(28).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칠레지부 회원들이 결혼식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랑 포소는 얼음 공화국 헌법 앞에 사랑을 맹세하며 신부를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색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자연을 증인으로 삼는 상징적인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 생각이 딱 떠올랐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림 됐죠!"

결혼식에는 그린피스 사람들 이외에도 커플의 친구와 친척 등 총 30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이들 앞에서 두 사람은 결혼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얼음 공화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국가다. 지구 온난화로부터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과 빙하를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 탄생한 '환경 국가'에 불과하다.

특별한 결혼식이 이곳에서 진행된 이유는 얼마 전 발표된 수력 발전소 계획 때문이다. 칠레 정부는 이 빙하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 안데스 중앙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그린피스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빙하를 향한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공화국의 '대사'를 맡고 있는 그린피스 칠레 지부장 마티아스 아순은 "이 커플은 바로 이곳에서 사랑과 희망의 몸짓을 보여줬다"면서 "빙하를 보호하는 법안을 칠레 정부가 만들어주길 바라는 기대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우리의 뜻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칠레 기네프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브라질행 '홍심' 변심은 없었다

월드컵 대표팀 최종명단 23명 발표
박주호·이명주 탈락…깜짝발탁 無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설 23명의 최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박주호(마인츠) 이명주(포항) 등의 탈락이 관심을 모았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홍 감독은 8일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최종명단 발표식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23명의 태극전사를 공개했다.

공격진에는 봉와직염으로 조기 귀국해 치료를 받아온 박주영(왓퍼드)과 원톱 스트라이커 자원인 이근호(상주) 김신욱(울산) 구자철(마인츠) 등이 예상대로 선발됐다.

최종 후보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던 미드필더와 수비수에는 박종우(부산)와 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발탁됐다.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로는 고참인 곽태휘(알 힐랄)가 뽑혔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명단(23명)

▲GK =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DF = 김진수(니가타) 곽석호(요코하마) 홍정호(아우쿠스부르크) 곽태휘(알힐랄) 이용(울산) 김창수(가시와) 윤석영(돈캐스터)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MF = 기성용(선덜랜드) 한국영(쇼난) 하대성(베이징궈안) 박종우(광저우 부리) 김보경(카디프시티) 이청용(볼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손흥민(레버쿠젠)

▲FW = 구자철(마인츠) 이근호(상주) 박주영(왓퍼드) 김신욱(울산)

봉와직염으로 치료를 받아온 박주호는 상태 호전이 늦어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9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이명주도 23명 명단에서 제외됐다.

축구협회는 최종명단 23명과 비공개한 7명을 합친 30명의 예비 명단을 이날 FIFA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선발된 선수들은 다음달 13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본격 담금질에 들어간다. 최종 23명이 가려진 만큼 홍 감독은 월드컵 기간 모든 선수가 최적의 몸 상태에 이르도록 관리하고 팀 조직력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평가전을 한다. 튀니지전은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설 알제리급 겨냥한 포석이다. 이어 30일 미국 마이애미로 출국해 다음달 11일까지 전지훈련에 나선다. 훈련 기간인 다음달 10일에는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12일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에 입성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돌아온 이용대·김기정 대표팀 복귀

약물 검사 불이행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됐던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국가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

8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용대 선수가 오는 1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 계남자 단계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 태릉선수촌 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같은 징계를 받았다가 함께 풀려난 김기정(24·삼성전기)과 8일 대표팀 훈련이 진행 중인 서울 태릉선수촌에 합류한다.

두 선수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검사에서 소재지 보고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아 지난 1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배드민턴협회는 행정적인 문제로 선수들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일어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그 결과 BWF 도핑청문위원단은 재심여부 없이 지난달 14일 두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용대는 유연성(국군체육부대), 김기정은 김사랑(삼성전기)과 각각 남자복식에서 호흡을 맞춘다.

/정의윤기자 yuw@

프로야구 전적 8일

■잠실

한화	301	011	000	6
LG	100	001	000	2

■마산

NC	000	000	300	3
넥센	201	000	001	4

■문학

삼성	000	002	021	5
SK	000	000	000	0

■사직

두산	401	303	031	15
롯데	022	100	100	6

유럽스타일 '젊고 커진' 대표팀

해외파 74%…그리스전 멤버 '베스트 11' 근접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23명의 태극전사들이 '베스트 11'을 향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개막까지 한 달여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부상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3월 6일 그리스와의 평가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4-2-3-1 포메이션에 맞춰 출전한 주전들은 8일 발표된 최종 명단에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박주영이 원톱 스트라이커, 구자철이 세도 스트라이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좌우 날개는 손흥민과 이청용 조합,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과 한국영이 유력시 된다. 또 김진수-김영권-홍정호-이용이 포백 라인을 형성할 전망이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필드플레이어와 달리 골키퍼는 마지막까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8일 오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23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표팀 선수들은 젊고 커졌다. 평균 체중은 76.1kg으로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의 76.4kg보다 덜 나가지만 키는 184.0cm로 1.6cm 커졌다. 최장신은 199cm의 이범영이며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김신욱이 196cm로 가장 크다. 최단신 선수는 177cm인 김진수와 이근호다.

평균 연령은 25.9세로 남아공 때보다 1.6세 어리다. 가장 어린 선수는 1992년 7월 8일생인 손흥민이며, 30대 선수는 33세인 곽태휘가 유일하다.

월드컵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지만 해외파 선수는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8명이 아시아 클럽 소속이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9명 포함됐다.

/유순호기자

잊혀진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

권기봉의 도시산책 <7>

오늘부터 약 44년 전인 지난 1970년 4월 8일. 잘 서있던 5층짜리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건립한 시민아파트 406개동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와우아파트다.

사고 30분 만에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예비군과 미8군 공병대원 등이 출동해 사고 수습에 진력을 다했지만 대형건물 붕괴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이 사고로 16가구 주민 73명 가운데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나마 입주 예정이던 30가구 가운데 절반만 입주한 상태에서 붕괴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모든 가구가 입주한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컸을 것이다.

도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된 와우아파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식에 전비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을 정도로 대내외의 관심을 받던 아파트였다. 그러나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백 개 동이 넘는 시민아파트를 지었으니 부실공사는 어미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와우아파트를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시민아파트들은 급경사 위에 지어졌는데 그 이유는 단 가지였다.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의 한 마디가 이를 대변한다. "야 이 새끼들아,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일 것 아니냐!" 와우아파트와 같은 시민아파트 건설사업은 사실상 도시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 졸속행정에 다름 아니었다.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44년이 흘렀다. 그 사이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며 삼풍백화점 역시 붕괴했다. 요즘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와우아파트로부터 얻은 교훈은 없어 보인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5/9 金 일출 05:29 일몰 19: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1.co.kr

서울 13/24 · 청주 9/24 · 대전 8/24 · 전주 8/25 · 광주 10/25 · 제주 15/22 · 강릉 10/26 · 울릉도 11/18 · 대구 12/26 · 포항 13/24 · 울산 12/26 · 부산 13/22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뇌의 활성을 촉진하는 비타민B군을 섭취해야 한답니다. 비타민 B군은 닭고기, 생선, 바나나 등에 많이 함유돼 있답니다.

현재 체질환기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서울백병원 www.ys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부동산 팔아 뭐라도 해야할지 유기농이나 과일 재배 어떨까

고응불가 남자 55년 8월 14 음력 오전 11시

Q 5년째 백수로 살면서 메트로신문의 선생님 상담코너를 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매매가 안됩니다. 자식들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답답하네요. 백수심정에 원이 됩니다.

A 귀하는 생월과 시지에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을 받는 길 한 별)을 두어 재복이 기본인데 운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 가진 재능과 실력을 발휘 못하고 신념과 현실이 어긋나서 하는 일에 막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 모든 것이 내탓이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역재기 쉴러 갈 수 있습니다. 63세 이후 운이 약간은 호전 될 수 있으니 작은 기술이라도 배우고 중고 판고자에 과일이나 행위기 장사라도 해야 자식들의 성화를 견딜수 있으며 그것도 하기 싫으면 남에게 허물면서 자신도 정규직으로 지낼 수 있는 문화 바꾸는 쉴보일을 하여 노후를 대비 하거나 귀농해서 유기농이나 과일재배를 해보세요.

여자와의 인연이 아직 없는데 기능장 되면 이성이 따라와요

기차기 조아 남자 85년 10월 5일 음력 약 11시20분

Q 살아오면서 남들 만큼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와 인연이 아직까지 없는데 결혼운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전반적인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전답이 메마른 형세'로 한번 감정이 격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울분을 터트려 나중에 번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록(숨어있는 재물)으로 재물의 궁핍함이 없으며 평생일복이 많아 분주하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신경을 쓰거도 합니다. 백이서는 무골호인이지만 전에 들어오면 무뚝뚝하고 간혹 출족한 기운을 드러내니 현실상로 종교생활로 정화함이 좋습니다. 주작현모(朱雀入墓 주작이 묘로 들어감)하여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과를 내므로 하고 있는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기능장이 되도록 하면 재물이 있고 능력 있는곳에 이성이 따라 오게되므로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꾸도록 힘쓰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7		
	3			6		9		2
				7				
6	4			8			2	
8		9				6		5
	2			4			7	9
				1				
3		6		2			1	
		7	8		5			

6			7	2			8	
2				9				3
	4		8				7	9
	6	1						
8								7
						1	3	
9	8				2		5	
3				8				1
	2			3	7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넘버스 / 펜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제공)

신점[神占] 운세 5월 9일 (음 4월 1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가족이 한자리 모여 즐겁다. 60년생 술잔은 한 계식은 생략할 것. 72년생 배우자와 생각의 차이가 좁아진다. 84년생 하늘이 준 기회이니 주저하지 말라.

소: 49년생 바쁘게 움직이나 몸은 가뿐~ 61년생 명예욕이 지나치면 너 허탈해진다. 73년생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일고 나가라. 85년생 연인의 문자에 힘을 얻는다.

호랑이: 50년생 사심이 앞서면 손해 본다. 62년생 주변의 의견을 존중할 것. 74년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기쁘다. 86년생 이성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라.

토끼: 51년생 부담되는 부탁은 거절하라. 63년생 모임에 가면 심심 못 할 즐거운 일. 75년생 작심한 일엔 자꾸이 쏘길 듯. 87년생 서두르면 중요한 것도 놓친다.

용: 52년생 음식점 경영자는 활기가 넘친다. 64년생 실세로 무상하나 어쩌기 무겁구나. 76년생 상대의 약점을 헤아려 숙인 있다. 88년생 어떤 경우라도 상사 의견 존중할 것.

뱀: 53년생 자녀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 버려라. 65년생 배우자와 대립각은 손해만 따른다. 77년생 과거 잊지 말고 미래 스승으로 삼아라. 89년생 궁하면 통한다.

말: 42년생 자란심히 오늘은 학이 된다. 54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법~ 66년생 기다리면 서광은 살짝 찾아온다. 78년생 지루한 일에 변화를 주어라.

양: 43년생 자녀에 부담되는 일은 말라. 55년생 생각도 못한 이득이 발생한다. 67년생 뭐에 벅찬 일은 적임자에 맡겨라. 79년생 겉으로 웃으나 속으론 우는 격이다.

원숭이: 44년생 대접받을 일이 생긴다. 56년생 하찮다는 소리 들어도 공사구별 잘 할 것. 68년생 인맥이 되기는 제안을 받는다. 80년생 신정한 자아를 찾아 행복한 하루~

닭: 45년생 배우자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57년생 자녀의 희소식에 입이 찢어진다. 69년생 파지 부질 없으니 최선을 다하라. 81년생 공들인 일은 결실을 맺는다.

개: 46년생 고민은 털어놓으면 가볍다. 58년생 뜻을 이루려면 교두보부터 마련하라. 70년생 찜찜한 일은 실행 않는 게 이롭다. 82년생 연인의 변심에 쏭 파버린 신세~

돼지: 47년생 흔들려도 부사심 일자 말라. 59년생 확고한 의지가 당당한 열매 선사한다. 71년생 선사를 싸움에 등 터지지 않도록 조심~ 83년생 하고 싶은 일에 더 몰두하라.